

인공지능(AI)과 법조 분야: 윤리적 · 규제적 고려사항

Lisa Webley* / 권 헌 영(역)**

목차

- I. 서론 및 배경, 맥락
- II. 결론

〈Abstract〉

법률 및 기타 전문 서비스는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드는 가운데, 근본적 기술 변혁으로 인해 변호사, 법률 서비스, 법률 시스템에 방대한 와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인공지능(AI)은 아직 전문 서비스 시장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지는 않으나, 글로벌 법률회사 및 회계 법인의 제품과 서비스가 더 많이 상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업계의 변화는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혹은 국가 간 금융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전 사회에 막대한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

AI는 AI 사용에 대한 현행 법적, 규제적 프레임워크의 범위, 한도, 적절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전문가, 비즈니스, 소비자, 정부, 국가가 당면한 윤리적인 도전과제와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 막강한 기술은 생산성과 부를 증대하는 한편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기업이 개인을 감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으며, 권위주의적 통제와 사회적 불평

등의 심화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변호사는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법치주의, 권리의 보호, 바람직한 거버넌스, 정당한 의사 결정을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고, 또한 앞장서야 한다.

본 논문은 법률 서비스와 사법 제도에서 AI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변호사 등이 의뢰인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데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 제안할 것이다. 또한 가상 시대에 관찰권의 무력함과 빅데이터에 접속하여 법적 맥락에서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막강함 등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일부 규제적, 윤리적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본 논문은 또한 의사결정의 투명성, 데이터의 질과 데이터로부터의 유추, 전문가의 책무와 윤리, 법적 책임, 사회적 수용, 공적 신뢰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룬다. 이런 변화가 우리 법률 시스템에 미치게 될 가능한 영향과, AI 기술과 그 사용의 규제적 접근법에 따라 법치가 어떻게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를 살펴볼 것이다.

I. 서론 및 배경, 맥락

법률 및 기타 전문 서비스는 4차 산업 시대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어 근본적인 기술 변혁을 이루고 있다.¹⁾ 정교한 온라인 플랫폼이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전문 서비스 기관들은 AI를 활용한

* 버밍엄대학교 로스쿨, 교수 · 학장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더욱 많은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문가의 업무형태를 재편할 것이라는 예측 끝에 AI의 잠재적 이점은 이제야 막 실현되기 시작했다.²⁾ AI 기술이 아직까지는 전문 서비스 시장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글로벌 법률 및 회계법인의 제품과 서비스가 상품화되면서 이 업계에 AI 개발의 때가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³⁾ 이는 국내 혹은 국가간 금융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결국 전 사회에 막대한 여파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시점에서 AI 시스템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알고리즘은 빅데이터와 함께 보험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미묘한 위험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증거를 사용하여 전략적 기업 투자 혹은 기타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되기도 한다. 전문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AI와 빅데이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AI는 입법 및 규제 프레임워크 전문가, 기업, 소비자, 정부 및 국가의 윤리적 과제와 위험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막강

한 기술은 생산성과 부를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기업이 개인을 감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으며, 권위주의적 통제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와 법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법치와 법률, 정치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무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효과적이고 적법한 거버넌스와 조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과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고 위험에의 노출을 줄이고 위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변호사들이 AI에 관여하고 변호사 업무에 영향을 미칠 위험과 윤리적, 규제적 프레임워크를 숙고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전체 법체계와 더 넓은 사회가 보호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법률 서비스 제공 시 AI 시스템과 그 효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전하는 방식이 얼마나 변화될 것인지와 그로 인한 일부 여파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셋째로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영향을 검토한 후 잠재적 규제문제에 대해 고찰해본다. 최종적으로 법조계 밖의 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결론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전문 서비스에서의 AI 시스템과 그 효용성

변호사들이 일상 업무에서 AI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이미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글로벌 법률회사 혹은 틈새시장을 노리는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활용하고 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시스템은 인간 변호사의 전문성으로 다듬어지고 변호사들의 감독 하에 운용되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AI 제품과

- 1) Brynjolfsson, E. and McAfee, A. (2016) “제 2차 기계 시대: 뛰어난 기술의 시대에 업무, 진행, 번영(*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W.W. Norton & Company; Schwab, K. (2017) “제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세계 경제포럼; Susskind, R. and Susskind, D. (2017) “전문직의 미래: 어떻게 기술이 인간 전문가의 업무를 바꿀 것인가(*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How technology will transform the work of human experts*)”, OUP.
- 2) Susskind, R. (1998) “미래의 법, 정보기술의 도전과제에 맞서다(*The Future of Law: Facing the challenges of information technology*)”, OUP; Bennett, J., Miller, T., Webb, J., Bosua, R., Ladders, A., and Chamberlain, S. (2018) “자동화 법률 자문 도구의 현황, Networked Society Institute 토론 논문 1 (*Current State of Automated Legal Advice Tools Networked Society Institute Discussion Paper 1*)”, 멜버른 대학교
- 3) CGMA (2018) “특별한 시대를 위한 회계: 금융의 미래(*Accounting in Extraordinary times: The Future of Finance*)”

프로세스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여 효율성 향상이 실현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개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AI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기술이 개입된다.

-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인간 언어를 컴퓨팅 언어로 번역할 필요 없이 인간 언어 그대로를 분석하고 사용하는 자연어 처리 시스템
-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모방하기 위해 인간의 두뇌와 신경계를 본 뜬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신경 네트워크
- 컴퓨터 시스템이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의사결정을 개선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정교한 통계 기법을 사용하는 기계 학습 시스템
-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학습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컴퓨터 기반 시스템이 점점 더 인간의 상호작용을 흉내낼 수 있도록 하는 인공 사회 지능 시스템

위와 같은 AI 시스템은 문제 진단 자동화에서부터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덜 정형화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시스템 모두 법률회사에서 이점이 없는 분야는 물론 이점이 있는 논쟁적 분야에서, 거래, 분쟁 및 소송 업무 등 모든 문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AI 시스템은 문서 분석 및 검토, 문제 진단 및 위험과 가능한 합의 패턴의 예측, 법규 준수, 검증, 우회 조치의 자동화 및 실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용성을 법률 전문가적 맥락에서 논의하겠으나, 의학이나 회계 등 다른 많은 전문 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가. 문서 분석 및 검토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스캔, 검사 및 비교하는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자연어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문서 검토 및 탐색(정밀 검색)을 실시하는 제품이 많다. 해당 프로세스는 키워드와 선택된 문구를 매칭시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추출하는 것만큼 간단한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사실관계의 유형과 법률 문제를 파악해 내는 등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탐색’을 시행한다. 즉, 조치가 필요하거나 법적 절차나 합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실이나 기타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계약서 초안 분석이나, 법률 보조원이나 준법률가(paralegal)와 같은 하위 직원이 수행하던 낮은 수준의 반복 작업에 소요되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기술 지원 검토 (TAR: Technology Assisted Review) 도구는 보조적인 도구로 현재의 법적 전문지식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은 인간이 단순 노동으로 수행하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체계화한다. 인간 변호사가 피로를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져 놓쳤을 수도 있는 사항들을 확인함으로써 인간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⁴⁾ 이러한 도구들은 그 자체로 법률 업무의 성격이나 변호사의 역할을 바꾸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법령 상 이러한 업무를 변호사 한 명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법률 회사 내에서 이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해당 제품을 변호사가 직접 사용하고 문서/데이터를 회사 외부의 사람들이 권한을 위반하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장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 오히려 비용의 절감이나 작업 품질의 향상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RAVN,⁵⁾ Luminance,⁶⁾

4) Bindman, D. (2018) ‘AI는 평범한 변호사보다는 낫겠지만 최고의 변호사는 이길 수 없다(AI Beats Average Legal Mind but not Best Performing Lawyers)’ <https://www.legalfutures.co.uk/latest-news/ai-beats-average-legal-mind-not-best-performing-lawyers>

5) 보다 상세한 사항은 <https://imanager.com/product/ravn/>를 참조. 용도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https://www.legalpracticeintelligence.com.au/reed-smith-experience-with-ravn-and-imanager/>

Leverton,⁷⁾ Kira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계약 관리와 분석 도구로 ContractProd,⁹⁾ Relativity¹⁰⁾ 그리고 Law In Order 등의 제품이 있다.

이러한 도구에는 보다 정교한, 기계 학습 기능이 있는데 의사결정 트리(Decision Trees)를 참조하여 해결이 쉬운 절차법과 실체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이는 기계가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법률을 구성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맞추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영국의 법률 프로젝트를 위한 국가기록원 빅데이터(UK's National Archives Big Data for Law Project)와 같이 기계 학습을 위해 법령을 의사결정 트리로 형태를 변환 제공하는 시스템이 이미 시험 운영 중이다.¹¹⁾ 그런데 이러한 기능은 뒤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법률 업무 형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나. 전문성, 분석, 예측 및 전략 개발

결과 예측 등 분석을 제공하는 맥락화된(contextualized) 검토 도구는 방대한 양의(고 품질) 데이터가 있어야 효과적이다. 맥락화된 검토 도구는 제안된 결과의 신뢰도와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베이시안 분석(Bayesian analysis: 확률통계 분석)과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가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히 고려할 수 있으려면 법률 전문가에 의해 갖고 다듬어져

야 한다. 도구가 도출한 결과값을 변호사들이 확인하고 알고리즘에 피드백을 입력하여 알고리즘을 개선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기계 학습은 여전히 법조계에서는 비교적 새롭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기 적발이나 의학적 진단 등 인간의 조사가 필요한 잠정적인 문제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기계가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 자가 학습하는 보다 정교한 방식도 있지만 아직 법률 분야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변호사의 데이터가 사실이나 완전한 자료가 아니라 서사적이거나 편파적인 경우가 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가 학습 도구가 개발될 수 있을 정도로 변호사 직업군이 충분히 탄탄한 데이터를 갖추는 것이 가능할지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만약 데이터가 충분히 탄탄하고 방대하다면 기계 학습 도구가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기계 학습 도구는 소송 및 중재 또는 조정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변호사는 더 나은 법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따라서 전문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모든 관련 변수를 아우르는 방대한 고품질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법정 데이터뿐 아니라 의뢰인 데이터는 법적 기밀이므로 공유가 불가하여 얼마나 많은 법률 시스템이 이를 고려할 수 있을지도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이 발전되더라도 결과를 해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예측이란 취해야 할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스스로 행동을 취하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예측 도구는 과거에 사용된 적이 있는 변수가 들어간 사례에만 작동하며, 새로운 법률 영역이나 새로운 상황을 다루는 시험 사례는 전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도구로는 다음과 같은 제품

6) 보다 상세한 사항은 <https://www.luminance.com/>를 참조. 그 외 참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https://www.slaughterandmay.com/news-and-recent-work/news/luminance-launches-with-backing-of-invoke-capital-and-in-collaboration-with-slaughter-and-may/>

7) 보다 상세한 사항은 <https://www.leverton.ai/>를 참조. 그 외 참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https://www.artificiallawyer.com/2017/03/29/baker-mckenzie-signs-global-ai-deal-with-leverton/>

8) 보다 상세한 사항은 <https://kirasystems.com/how-it-works/contract-analysis/>를 참조하십시오.

9) 보다 상세한 사항은 <http://www.contractpod.com/>를 참조하십시오.

10) <https://www.relativity.com/>

11) 영국의 법률 프로젝트를 위한 국립 공문서관 빅데이터에서 수행 중인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digital-projects-at-the-national-archives.pdf>를 참조.

들이 존재한다. Lex Machina¹²⁾는 미국 연방 법률, 판례 및 법원 파일을 의뢰인의 사례 정보와 대조 분석하여 변호사에게 특정 영역의 해당 사례가 어떻게 합의 또는 판결될 수 있을지 예측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¹³⁾ 또한 Ravel Law사의 Judge Analytics¹⁴⁾는 특정 유형의 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특정 판사가 해당 유형의 사건을 판결하는 패턴을 평가한다. DocketAlarm,¹⁵⁾ Lexis Nexis Legal Analytics Australia (고등 법원 판결)¹⁶⁾ 및 VizLegal는 소송 전략 개발을 지원하는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다. 법률 검색

이 부분이 자동화에 가장 취약한 영역이며, 많은 변호사들이 법대생처럼 반지능형(semi-intelligent) 법률 검색 도구를 사용하도록 훈련받게 된다. 일부 시스템은 주요 법적 출처 (판례, 법안 등)를 조사하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어떤 시스템은 이를 넘어 해당 법률의 논점에 대한 실무자 및 학술 논평과 같은 부수적인 기타 출처들을 검색하기도 한다. 일부 검색 도구는 특정 분쟁 또는 사건과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파악한 모든 관련 문서를 검색 대상으로 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 Casetext의 CARA AI¹⁷⁾는 법원에 제출된 모든 문서를 검색한다¹⁸⁾). 또한 Ravel Law사¹⁹⁾의 제

품처럼 파악한 사실에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돕는 법률 검색 도구도 있는데,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상황별 법률 검색으로 찾아내고, 자연어 처리와 기계 학습을 이용해 해당 사례가 특정 검색 질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답을 그래픽 등의 형태로 제시한다. IBM사의 ROSS²⁰⁾의 경우 법률 검색 도구뿐만 아니라 특정 법적 맥락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까지도 제시한다.²¹⁾

라. 추가적인 도구

법률 회사의 사건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한 여러 제품 및 시스템이 있으며, 일부는 AI를 활용하고 일부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도구들은 행정 업무, 문서, 주요 날짜 등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법원 제출을 위해 문서 양식을 맞추고, 탐색과 법률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와 증거를 정리하는 업무 등을 한다. 이는 자동화를 통해 변호사의 시간과 행정업무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확인되면 자체적으로 실행되도록 계약의 요소를 자동화하는 스마트 계약 역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²²⁾ 스마트 계약에 내재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해, 예를 들어 부동산 매수금이 수령되면 부동산에

12) <https://lexmachina.com/>

13) 호주 파이낸셜 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에 2017년 4월 25일에 게재된 Koebler, J.의 “인공지능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Is Artificial Intelligence Making Lawyers a Disappearing Profession?)”를 참조. <<https://www.afr.com/business/legal/is-artificial-intelligence-making-lawyers-a-disappearing-profession-20170418-gvmzbs>>.

14) <https://www.ravellaw.com/judges>

15) <https://www.docketalarm.com/>

16) <https://www.lexisnexis.com.au/en/insights-and-analysis/practice-intelligence/2018/Lawyer-vs-AI-A-legal-revolution>

17) <https://casetext.com/> 참조.

18) Law Practice Today에 게재된 Mills, M.의 “AI 로봇이 도래하고 있다(있지 않다). (The AI Robots are (not) Coming)” (2018) <lawpracticetoday.org/article/3417>, 2. 및 호주 파이낸셜 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에 2017년 4월 25일에 게재된

Koebler, J. “인공지능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Is Artificial Intelligence Making Lawyers a Disappearing Profession?)” <<https://www.afr.com/business/legal/is-artificial-intelligence-making-lawyers-a-disappearing-profession-20170418-gvmzbs>> 참조.

19) <https://ravellaw.com/search>

20) <https://rossintelligence.com/> 를 참조. Ross 사에 따르면 “ROSS는 법률 검색의 효율성, 정확성, 수익성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AI) 시스템이다. ROSS를 사용하는 기업은 검색 시간이 30% 감소하고 40% 더 적절한 관청을 찾아내었으며, 그 결과 핵심 검색 하나만 해도 투자수익률(ROI)이 177%에서 545%까지 상승했다고 보고되었다.”

21) 상기 언급된 Mills, 2018년 및 Koebler, 2017년을 참조.

22) 보다 상세한 사항은 2017년 3월 28일자 S. Peyrott, “이더리움과 스마트 계약에 대한 개론: 프로그램 가능한 블록체인 (An Introduction to Ethereum and Smart Contracts: a Programmable Blockchain)”을 참조. <https://auth0.com/blog/an-introduction-to-ethereum-and-smart-contracts-part-2/>

대한 법적 소유권이 바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이전되게 하는 등 계약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다.²³⁾ 국가 부동산등기소의 자료가 블록체인에 입력된다면(두바이의 경우를 참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은 토지 매매 등 특정 유형의 거래를 변혁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는 블록체인 원장 전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다.²⁴⁾

법원 시스템 내에서도 AI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실제로 일부 미국 법원(COMPAS, US)에서는 유죄 판결이 난 후 형의 기간을 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인구의 재범 데이터(recidivism data)가 포함된 빅데이터와 함께 형량을 정하는 법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²⁵⁾ AI 적용 시스템은 가족법 문제 등 민사 분쟁에서도 당사자들을 안내해 줄 수 있다(예를 들어 호주 가정 법원의 Split Up initiative,²⁶⁾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민사 소송 재판소²⁷⁾ (Civil Resolution Tribunal)의 소액 청구 및 주택 임대 분쟁에 대한 Solution Explorer, 또는 7,000 유로 이하의 모든 소액 청구에 대해 에스토니아에서는 AI 적용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²⁸⁾). 이러한 시스템의 신뢰도, 탐색 능력, 공정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으나, 다른 관할권에서도 AI 시스템의 사용을 고려중이다.

2. 전문 법률 서비스 및 법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기술은 전통적 모델이나 법률 업무 뿐 아니라 법률 회사의 조직 구조에도 와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이 있다. 법률회사는 서비스를 분리하여(개별 업무와 프로세스로 나누어 상이한 사람, 장소, 기계에 배분) 맞춤형(bespoke) 서비스가 아닌 대량 상품으로 취급하게 될 것이다.²⁹⁾ 암호화 및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 원장 시스템(distributed ledger systems)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변화의 속도와 영향력도 더욱 확대될 것이며,³⁰⁾ 거래가 기록되고 블록체인에 추가되면 소유권이 확정 검증되어 그동안 변호사들이 수행해오던 특정 유형의 법규준수활동(compliance) 및 실사 절차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 이로 인한 법률 업무 및 법률 시스템, 더 나아가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적 측면에서, 전문직업 측면에서, 규제 프레임워크의 측면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³¹⁾

다수의 글로벌 법률 회사 및 4개의 글로벌 회계법인과 일부 틈새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 등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는 AI와 관련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 법률기술 벤처 허브를 이용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 및 테스트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³²⁾ 또한 일부 법률 출판사

23) 블록체인이 변호사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참조할 만한 자료.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술이 변호사를 대체할 것인가,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Smart Contracts: The Blockchain Technology That Will Replace Lawyers: A beginner’s guide)” <https://blockgeeks.com/guides/smart-contracts/>

24) M. Cross, “블록체인은 부동산 양도 전문 변호사에게는 나쁜 소식이다(Blockchain deal bodes ill for conveyancers)”, 2017년 10월 16일, Law Society Gazette <https://www.lawgazette.co.uk/news/blockchain-deal-bodes-ill-for-conveyancers/5063242.article>

25) Stobbs, N., Hunter, D. 와 Bagaric, M.,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형량 결정이 개선될 수 있는가?(Can Sentencing Be Enhanced b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7) 41 *Criminal Law Journal* 261.

26) Carneiro, D., Novais, P., Andrade, F., Zeleznikow, J., Neves, J.의 “온라인 분쟁의 해결: 인공지능적 관점(Online Dispute Resolution: An Artificial Intelligence Perspective)” (2014) 41(2) *Artificial Intelligence Review* 211.

27)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solution-explorer>

28) <https://www.newsscientist.com/article/2212953-ai-learns-to-predict-the-outcomes-of-human-rights-court-cases/>.

29) CGMA (2018) “특별한 시대를 위한 회계: 금융의 미래 (Accounting in Extraordinary times: The Future of Finance)”

30) 로이터 통신사는 블록 체인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그래픽으로 설명하고 있다. <http://graphics.reuters.com/TECHNOLOGY-BLOCKCHAIN/010070P11GN/index.html>

31) Bennett, J., Miller, T., Webb, J., Bosua, R., Loddors, A., and Chamberlain, S. (2018) “자동화 법률 자문 도구의 현황, Networked Society Institute” 토론 논문 1(*Current State of Automated Legal Advice Tools Networked Society Institute Discussion Paper 1*), 멜버른 대학교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예: LexisNexis)는 소규모 법률 회사 등에 전문가 시스템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사결정 트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관할권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들에게도 이를 허용한다. 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법률 서비스 시장(때로는 New Law라고도 함)에는 많은 새로운 참가자가 존재한다.³³⁾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같은 관할구역은 매우 협소하게 비승인 법률 업무 규칙(unauthorised legal practice rules)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 사업 구조(Alternative Business Structures, 변호사 소유의 전통적 법률 회사가 아님)를 허용하여 순수 기술 회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대중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전통적인 법률 회사와 협력하거나 법률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했으며(예, Legal Zoom과 Beaumont Legal³⁴⁾) 혹은 대형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인수된 경우도 있다(EY가 Riverview Law를 인수³⁵⁾). 한편 모든 법률 기술 플랫폼이 이윤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DoNotPay³⁶⁾와 LISA the robot lawyer³⁷⁾ 등의 경우는 정의에 대한 접근이나 순수한 혁신을 목표로 개발된 것이며, 대중이 직접 특정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한, 잉글랜드나 웨일즈 같이 규제 체계상 허용이 되는 관할권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DIY’ 모델도 인기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스스로 일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기술 플랫폼에 도움을 얻어 노력이 상당히 들더라도 직접 법률 업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플랫폼은 자선 기관이나 주 법률 지원 제도하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정도로 빈곤하지는 않으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전적으로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여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법적 정의에 대한 접근, 적어도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법과 법 체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법적 이해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법률 자문을 받고 수익성을 높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컨대, 이러한 기술은 아래 3장에서 논의할 일부 위험성 뿐 아니라 잠재적 유익성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은 변호사란 누구이고 무엇인지,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학제의 경계, 전문성, 직업 훈련, 소비자 보호, 형편없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전통적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다.³⁸⁾ 또한 기술에서 비롯된 윤리적 도전과제와 위험 등 법률 전문가들이 탐구해야 할 광범위한 질문들이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정의에 대한 접근성 제공이라는 서비스를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강화시킬 것인가 까지 확대된다. 최근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률 협회(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에서는 AI의 윤리에 관한 조

32) 예를 들어 Allen & Overy의 Fuse를 참조. <http://www.allenoverly.com/advanceddelivery/fuse/Pages/default.aspx>. Herbert Smith Freehills도 참조. <https://www.herbertsmithfreehills.com/latest-thinking/hubs/disruptive-technology-and-innovation>

33) Kohn, A. (2017) “AI 법률 회사는 ‘법률 업계 전체를 자동화하기 원한다 (An AI Law Firm Wants to Automate the Entire Legal World)’”, 2017년 1월 30일, <https://futurism.com/an-ai-law-firm-wants-to-automate-the-entire-legal-world/>

34) J. Hyde, “LegalZoom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인수하다(Legal Zoom to Make First UK Acquisition)”, 2015년 12월 7일, Law Society Gazette <https://www.lawgazette.co.uk/news/legalzoom-to-make-first-uk-acquisition/5052608.article>

35) EY Law, “EY는 Riverview Law 인수를 통해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다(EY expands global legal managed services offering with acquisition of Riverview Law)”, 2018년 8월 8일, <https://eylaw.ey.com/2018/08/08/ey-expands-global-legal-managed-services-offering-with-acquisition-of-riverview-law/>

36) <https://www.donotpay.com/>

37) <http://robotlawyerlisa.com/>

38) City-REDI, BPS Birmingham and Black Country Consortium (2018) “서중부 지역을 포함한 행정구역에서 비즈니스, 전문, 금융 서비스 생산성의 기반에 대한 연구(An Investigation into the Foundations of Productivity for Business, Professional and Financial Services in the West Midlands Combined Authority Area)”. Birmingham: WMCA. <https://www.wmca.org.uk/media/2236/business-professional-and-financial-services.pdf>

사를 통해 AI와 관련한 다섯 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고 정리하였다(투명성, 윤리성, 책임성, 전자 인간, 사회적 수용).³⁹⁾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회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또한 다루어져야 한다.

3. AI의 사용으로 인한 윤리적 고려사항

AI는 법률 서비스에 더 빠르고, 저렴하며, 더욱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⁴⁰⁾ 그러나 한편 의사결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고 그 결정의 이면에 있는 추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의 현재의 이해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⁴¹⁾

가. 투명성(Transparency)

또한 법정에서의 논쟁을 통해 판례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변호사가 어려운 사실관계에 대해 법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화적 논쟁을 하지 않는다면, 법의 발전에 기반이 되어온 규범을 어떻게 반박하고 알고리즘에 반영하여 판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은 단순히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맥락 하에서 고려되는 불변의 가치의 고갱이라고 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순전히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법

의 해석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면, 법은 사회적 규범보다 뒤쳐질 것이다. 법원 판결에서 알고리즘의 사용은 인종차별이나 그 외 다른 편견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⁴²⁾ 빅데이터는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기존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 따라서 기존의 개별 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며, 데이터에 내재된 편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역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재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련의 출처를 보면 경찰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예,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불심검문하도록 편견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탄탄한 법 체제에서는 사법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독립 법원을 통해 항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제기를 허용하기 위해서 판결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밝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의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대해 적절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 이는 여러 관할권에서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있다.⁴³⁾ 따라서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법 체계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나. 윤리성(Ethics)

윤리성(Ethics)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정의 상

39) Law Society(2018) “인공지능 (AI)과 법률 전문가 - 예측 보고서(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he Legal Profession - Horizon Scanning Report)”, 영국 사무변호사회(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 법률 서비스변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Law Society (2016) “법률 서비스의 미래” (*The Future of Legal Services*), 영국 사무변호사회(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를 참조.

40) Susskind, R. (1998) “미래의 법, 정보기술의 도전과제에 맞서다(*The Future of Law: Facing the challenges of information technology*)”, OUP

41) Bingham Centre for the Rule of Law (2017), “인공지능, 빅데이터, 법치에 대한 이벤트 보고서(*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the Rule of Law Event Report*)”, 게재된 웹사이트 https://www.bicr.org/documents/1798_ai_event_-_final_report_15_11_2017_002.pdf?showdocument=1

42) Dressel, J.과 Farid, H. “재범 예측의 정확성, 공정성, 한계(The Accuracy, Fairness, and Limits of Predicting Recidivism)” (2018) *Sciences Advances*, 게재된 웹사이트 <http://advances.sciencemag.org/content/4/1/eaao5580>.

43) Hamilton, V. “형량을 정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진정 알고리즘이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We use big data to sentence criminals. But can the algorithms really tell us what we need to know?)”, 2017년 6월 6일, 해당 대화가 게재된 웹사이트 <http://theconversation.com/we-use-big-data-to-sentence-criminals-but-can-the-algorithms-really-tell-us-what-we-need-to-know-77931>; Kehl, D., Guo, P. 와 Kessler, S. (2017) “형사 시스템의 알고리즘: 형량 결정 시 사용에 대한 위험 평가(Algorithm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ssessing the Use of Risk Assessments in Sentencing)” Responsive Communities Initiative,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Harvard Law School. 게재된 웹사이트 <http://nrs.harvard.edu/urn-3:HUL.InstRepos:33746041>.

에 혼선이 있는데, 어떤 이는 근본적인 도덕 원리에 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며, 누구는 윤리성이 개인과 국가 또는 많은 권력을 가진 자와 적은 권력을 가진 자 사이의 평등과 같은 좀 더 주관적인 공정성의 침해 정도를 의미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직업 상 규정의 위반의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리성이란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에 도달하는지 또는 특정 행동을 보다 정당화하는 것과 관련된 철학적 개념이라고 한다.⁴⁴⁾ AI 사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많은 알고리즘과 일부 기계 학습 애플리케이션, 신경 네트워크의 개발에 필요한) 개인 정보가 은밀한 혹은 은밀하다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투명하지 못하거나 이의가 생길만한 방식으로 사용된 데이터로 내려진 의사결정이 공정한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데이터에 편견이 내재되어 있고, 국가와 대기업이 데이터를 이용해 사회의 집단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변호사들은 시민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잠재적 침해 행위에는 앞장서서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AI 관련 업무가 비난의 여지없이 완벽해야 한다. 변호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의뢰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사전에 명시적인 설명을 통해 동의를 얻고, 의뢰인이 법적 기밀성을 포기하고 정보 제공으로 인한 영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 자체의 업무 통제를 위해 전문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탄탄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 책임성(Liability)

법적 책임은 변호사의 숙명이다. 이는 단죄과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 책임을 배분하여야 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인간 행위자 한 명만이 의사결정에 관련되어 있다면 책임을 배분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외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전문 AI 구동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여러 명의 사람이 사용한 경우라면 보다 어려운 문제가 된다. 또한,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일부 작업을 맡고 변호사가 다른 부분을 담당할 시에는 더욱 책임을 논하기가 어렵다. 누구의 행위가 오류를 일으켰거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는가?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누가 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가 (책임 배제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중 강력한 쪽이 초기 계약서에 책임 배제 조항을 넣을 것이다). 이러한 질문 중 일부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질문이며, 일부는 전문가단체에 대한 질문(전문가가 법적 책임을 배제하더라도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이다. 또한 대형 기술 회사들이 글로벌 기업에 친화적인 관할권에 본사를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법규를 회피할 수 없도록 국제 협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도 있다.

라. 사회적 수용(Public Acceptance)

법률 및 금융 시스템은 신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신뢰에 의존한다. 신뢰란 개인이 시스템의 유익성과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의 결과에 대해 이해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 또한 신뢰란 잠재적 의뢰인이 해당 시스템에 대해 겪게 된 개인적 경험의 산물이기도 한다. 여기에는 데이터 보안, 데이터 사용, 개인정보 보호 및 정확성에 대한 질문과 어떤 데이터가 보관되며 어디에 보관되는지 알고, 데이터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이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감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될 수 있다. 더 나아가 AI를 이용한 의사결정이 신뢰

44) Delacroix, Sylvie (2019) "컴퓨터 시스템이 해당 직업에 적절하다(Computer Systems Fit for the Profession)" Vol 21 2 *Legal Ethics*.

할 만하고 공정한지, 그 의사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까지 관련된다. 본 논문은 사회적 수용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겠으나, 법이란 대다수의 대중이 사회를 지배하는 법률 규칙의 거의 대부분을 준수하고자 할 때만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만 언급한다. 예측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탄탄한 법적 시스템은 국가의 경제적 건전성도 크게 좌우한다. 만약 AI가 법적 의사결정의 주류가 되고, 번덕스럽고 예측 불가하거나 불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인식되면, 이는 법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신뢰의 결여와 변형 사회의 기반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며 법치주의는 훼손될 것이다.

4. 이런 상황에서 AI 이용에 파생되는 규제 고려사항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국제법, 국내법 및 각종 제도, 해당 전문직 특수 규제와 각종 규범 등 복잡한 체계에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지식, 기술 및 역량을 필요로 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전문서비스 시장에서 특권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⁴⁵⁾ 이러한 법률 및 규제 체계는 제약 조건이기도 하지만 가치와 경쟁적 우위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잠재적 의뢰인에게 품질의 지표 역할을 하고 신뢰와 지위를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⁴⁶⁾ 또한 특정 상황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전문직업 영역의 혁신에 제동을 걸거나 추진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복잡한 법규 준수 관행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위험을 수반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AI는 본질적으로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전문직 규제나 그 프레임워크는 국제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대부분 특정 관할권 내에서 다루어진다. 그리고 AI 작업결과는 대부분 비교적 통제하기 어려운 가상공간에 저장된다는 점에서 AI는 규제 조항과 프레임워크를 피해가는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다.⁴⁷⁾ 지식과 지식의 전문적 이용은 개인이나 국가가 규제하는 기관의 손을 벗어나게 되고 현재의 규제 방식은 거의 무력해지게 된다.⁴⁸⁾ 더욱이 전문 서비스는 명시적인 사법적 금지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면 사실상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제공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한 관할권에서 제제가 있으면 AI 플랫폼에 우호적 규제 체제를 갖춘 다른 곳으로 일괄 이전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이 서비스의 이용자인 전문가는 이동할 필요가 없고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플랫폼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일부 관할권이나 특정 유형의 의뢰인들에게는 이런 잠정적 규제 자유가 이익이 될 것이고, 오히려 제대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자동화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져 아용상의 위험을 간과할 수

45) Abel, R.L.와 Lewis, P.S.C. (1995) "사회의 변호사, 개론 (Lawyers in Society: An Overview)",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6) Abel, R.L. (1988)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법률 전문가 (The Legal Profession in England and Wales)", Wiley Books.

47) Lovelock, P. (2018) "디지털 경제를 위한 정책의 골자 마련, 아태지역에서 정책 프레임워크를 위하여(Framing Policies For The Digital Economy Towards Policy Frameworks In The Asia-Pacific)", UNDP 공공 서비스 우수성을 위한 글로벌 센터 (Global Centre for Public Service Excellence).

48) Yeung, K. "알고리즘적 규제: 비판적 신문(Algorithmic Regulation: A critical interrogation)" (2018) Vol 12 Iss 4 Regulation and Governance 505-523; 출판 예정인 Yeung, K. 와 Lodge, M.(eds) (2019) "알고리즘적 규제 (Algorithmic Regu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을 참조. 또한 Brownsword R., Scotford, E.와 Yeung, K. (2017) "법 규제 및 기술에 대한 옥스포드 핸드북(The Oxford Handbook of Law, Regulation and Technology) OUP"; Brownsword, R.와 Yeung, K (eds) (2008) "기술 규제: 법적 미래, 규제 프레임, 기술적 수정(Regulating Technologies: Legal Futures, Regulatory Frames and Technological Fixes) Hart Publishing"; Law In Context 시리즈 중 Bronwen Morgan와의 공저 "법과 규제에 대한 개론(An Introduction to Law and Regulation)" (20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Yeung, K. (2004) "법규 준수 확보(Securing Compliance)" Hart Publishing.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자동화 시스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겉으로 흘려보이거나 신뢰할 만하고, 효율성/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 뿐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 기초 데이터의 품질,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의 윤리, AI를 사용하는 전문가들의 가치관과 이들이 AI를 의뢰인의 이익만이 아닌 폭넓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힘의 불균형을 중재하는 입장이다. 전문가인 자신과 비전문가인 의뢰인간의 힘의 불균형, 자신의 의뢰인과 법적 문제의 상대방 간의 힘의 불균형 등을 중재한다. 그러나 AI에는 여기에 데이터가 또 한 층의 힘의 관계로 작용한다. 즉, 도구를 개발한 회사들과 도구를 이용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간의 힘의 관계이다. 전문가란 단순히 전문적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 법률 전문가란 법치주의의 지지자이자 보호자이다. 법률 전문가는 반드시 AI라는 도구가 가져올 득과 실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입법자 및 법원과 협력하여 근본적인 가치들이 잠식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 결론

요컨대, AI는 이미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국가 행위자를 포함한 공적, 사적 행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바꾸기 시작했다. 또한, AI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도구와 선택사항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도구는 비용, 속도 및 정확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⁴⁹⁾ 법률 분야에서 AI는 법적 이해력과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재 학대와 불공정에 이의를 제기할 능력

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변호사들은 여러 영역과 여러 단계에 나누어져 많은 관할권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 정체성에 부담이 더해질 수도 있다.⁵⁰⁾ AI 지원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AI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AI가 제공한 결과를 조사하여 오류나 잘못된 ‘결과’를 적발해낼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⁵¹⁾ 오히려 전보다 높은 수준의 비판적 분석 기술이 필요하며, 새로운 업무 방식에 맞게 교육 모델 또한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고등교육 이후 견습 모델(apprenticeship model of training post higher study)은 역동적인 기술적 변화와 일상적인 작업의 자동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률 전문직은 고도로 박식한 전문가-시스템 변호사(expert-systems lawyers), 일상적 서비스 제공자, 법률 기술자로 더 세분화될 것이다.⁵²⁾ 전문 기관은 명확한 교육 경로를 개발해야 하며, AI가 도입되기 전부터도 불가피했던 계층화된 변호사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공동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⁵³⁾ 일상 업무를 인간이 아닌

50)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참고 자료. 출판 예정 중인 Webley, L., Flood, J., Webb, J., Bartlett, F., Galloway, K., Tranter, K. “전문가의 로테크 참여: 미래 법에 대한 서사 및 원형(The Profession(s)’ Engagements with Lawtech: Narratives And Archetypes Of Future Law)” (2019) vol. 1 *Law Technology and Humans*.

51) 출판 예정 중인 Galloway, K., Webb, J., Bartlett, F., Flood, J., Webley, L. “법 학계의 로테크 참여(The Legal Academy’s Engagements with Lawtech)” (2019) Vol. 1 *Law, Technology and Humans*을 참조.

52) de Rozario, M. 와 Kumaragamage, R. “왜 법률 기술가가 새로운 ‘Why Legal Technologists are becoming the ‘New Normal’ (4 September 2017) Corrs Chambers Westgarth <http://www.corrs.com.au/thinking/elsewhere/why-legal-technologists-are-becoming-the-new-normal/>. 영국에는 그 외에도 변호사와 컴퓨터 과학자/기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AI 와 법 학회가 더 많이 열리고 있다. 예를 들자면 British Legal Technology Forum, Alternative Legal IT Conference, the Legal Futures Annual Innovation Conference, the Legal Geek Conference 등이 있다.

53) Boon, A., Flood, J. 와 Webb, J. (2005) “포스트모던 직업군? 법 교육과 법 전문직의 분화(Postmodern Professions? The Fragmentation of Legal Education and the Legal

49) *Law Practice Today*에 게재된 Mills, M.의 “AI 로봇이 도래하고 있다(있지 않다). (The AI Robots are (not) Coming)” (2018) <lawpracticetoday.org/article/3417>, 2.

기계가 맡게 되면서 이 직업군 자체는 축소될 수 있지만,⁵⁴⁾ 많은 의뢰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어려운 시기에 전문적인 인간 변호사를 통한 인간적 상호작용과 지도를 원할 것이다. 즉 소프트 스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투명성, 권력의 중심과 균형을 비롯한 윤리성, 소비자 보호와 공적 신뢰를 비롯한 책임 등 다루어야 할 도전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에 대한 논쟁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의 규범에 의해 다루어질 수도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컴퓨팅 성능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나타난 세계적 규모의 일괄적 데이터 수확 및 사용이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또한, 규제와 입법 체계는 대부분 한 국가 내에서 한정된다. 따라서 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한편 개인과 조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쟁적 이익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비교적 근본적인

철학적 개념을 규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Profession)" Vol. 32 No. 2 학술지 법과 사회(Journal of Law and Society) 473-492.

- 54) Arntz M. Gregory T. 와 Zierahn U. (2016), "OECD 국가의 직업 자동화 관련 위험: 비교분석(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OECD 사회적, 고용, 이민에 대한 실무 보고서(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89, OECD 발행 자료 (2018) "변혁적 기술과 미래의 직업(Transformativ Technologies and Jobs of the Future)", <https://www.oecd.org/innovation/transformativ-technologies-and-jobs-of-the-future.pdf>; Frey C.B. 와 Osborne M.A. (2017), "고용의 미래: 직업이 전산화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기술 예측 및 사회 변화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114, 2017년 1월, 254-280; 옥스포드 대학교와 Oxford and PwC의 공동 발행 (2018) "로봇이 진정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 갈 수 있는가? 자동화의 잠재적 장기 여파에 대한 국제 분석 (Will Robots Really Steel Our Jobs? An international analysis of the potential long-term impact of automation)" <https://www.pwc.co.uk/economic-services/assets/international-impact-of-automation-feb-2018.pdf>.

Keywords : 인공지능과 법조 분야(AI and the Legal Profession), 규제(Regulation), 윤리(Ethics), 법치주의(Rule of Law), 공적 신뢰(Public Trust)